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경 재외동포청
배포일자		2023년 5월 17일(수) 총 3매		인천설치 확정!
담당 부서	관광마이스과	담 당 자	• 관광마케팅팀장 박은희 ☎440-4001 • 담당자 오진미 ☎440-400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동남아 관광객 선점위해 현지에서 ‘단독 로드쇼’ 개최**  
 - 이행숙 부시장 단장으로 방문단 꾸려, 태국과 베트남 방문 -  
 - 2023~2024 한국-태국 상호방문의 해 연계, 동남아 시장 경쟁우위 확보 -  
 - 국내·외 여행업계 트래블마트, 인천관광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해외 관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인천시가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 선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동남아시아 주요 시장의 해외관광객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 인천(Soft Power INCHEON, 인천이 가진 관광, 문화 등의 매력)’을 주제로 태국과 베트남에서 인천 관광 단독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19일과 20일에는 태국에서, 5월 23에는 베트남에서 로드쇼가 열릴 예정인데, 관광·의료·마이스 등 21개의 인천 관광 기업이 공동 마케팅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로드쇼 개최를 위해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을 꾸렸다. 이행숙 시 정무부시장은 태국 일정에 직접 참여해 방콕 주지사를 만나 양 도시 간의 우호 협력을 다지고, 인천 관광 설명회에서는 인천의 관광지, 축제, 한류 콘텐츠 등을 홍보해 동남아권 잠재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한국과 태국·베트남 간의 상호 방문 관광객 규모는 각각 246만 명, 485만 명으로, 관광시장에서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국제 관광이 재개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동남아 한류 거점의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K-culture) 콘텐츠가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2023~2024년 한국-태국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그 시너지는 배가 될 전망이다.

이번 로드쇼는 현지 우수 여행사들과 인천만의 관광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5월 19일 태국에서는 국내·외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B2B트래블마트’가 진행되며, 이어 현지 주류 여행사 및 언론사 등 관계자를 초대해 관광·마이스·의료 등 분야별 우수한 문화자원과 관광 여건을 소개하는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20일에는 방콕 시내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포토존, 인천퀴즈, K-POP 커버댄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인천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릴 계획이다.

이어 5월 23일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현지 여행업계 및 미디어 관계자를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열어 인천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상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이번 로드쇼는 인천 관광의 주요 시장인 동남아 잠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과 합심해 준비했다” 며,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인천의 우수 자원을 알리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인천에 대한 관광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자료] 태국 및 베트남 단독 로드쇼 키비주얼

	
태국 로드쇼 키비주얼	베트남 설명회 키비주얼